

제 6 회

부산 작곡마당

정기 연주회

- 일시 2011. 8. 26(금) 저녁 7:30
- 장소 부산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주최 부산 작곡마당
(<http://cafe.daum.net/dongilsheen>)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SF 부산문화재단

● 공연문의 051)513-1009

● 참여 작곡가 오 세 일
이 용 주
홍 광 현
김 태 환
백 현 주
홍 수 정
정 다 정
유 찬 미
김 지 은
김 이 레

P R O G R A M

1부 성악 및 실내악곡

- 유찬미 생활과 25현 가야금을 위한 “낮선 Vol.2”
- 김태환 박선미 시에 의한 두 편의 동요 “지금은 공사중”, “기쁨 두 배”
- 홍광현 해금과 기타를 위한 소곡 “외-연(戀)” “FIELDS OF GOLD”
- 이용주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아름다움이 그리운 IV”
- 백현주 가야금 · 거문고 · 생황을 위한 모음곡 “사막의 발견”
- 오세일 김복근 시에 의한 두 편의 가곡 “한려일출”, “미더덕의 꿈”

2부 합창곡

- 연주 : 하모니 합창단 ● 지휘 : 김강규 ● 반주 : 윤지영

- | | |
|---------|-------------|
| 숲속의 메아리 | 이용주 곡 |
| 기도 | 홍수정 곡 |
| 산유화 | 김소월 시 김지은 곡 |
| 계화타령 | 정다정 곡 |
| 추억 | 조병화 시 김이레 곡 |
| 마른장작 | 김용택 시 백현주 곡 |

*본 공연은 2011년 부산광역시 무대지원금을 일부 지원받은 공연입니다.

PROGRAM NOTE

유찬미 **생활과 25현 가야금을 위한 “낯선 Vol.2”**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낯선” Vol.1 에 이어 같은 주제를 갖고 가야금과 생활을 위한 곡으로 새로 쓴 곡이다. 새로운 것을 대면했을 때 난.. 항상 두렵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척 내용을 떨고 있지만 속으로는 쿵덕쿵덕 가슴이 뛰고 어디론가 숨고만 싶다. 이 두 악기도 그랬을까? 두 악기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 서로의 “낯선” 소리, “낯선”음악, “낯선”만남을 가야금의 현대적인 주법과 생활의 반복적인 4도화성과 5도 화성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김태환 **박선미 시에 의한 두 편의 동요 “지금은 공사중”, “기쁨 두 배”**

지금은 공사중은 친구와 다룬 일을 후회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순수한 마음이 잘 드러난 시이며, 기쁨 두 배는 더 귀한 가치를 깨닫고 자라가는 어린이의 마음이 잘 드러난 동시이다. 시인이 표현하고자했던 아름다운 동심을 꾸밈없이 소박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홍광현 **해금과 기타를 위한 소곡 “외-연(戀)” “FIELDS OF GOLD”**

“외-연(戀)”에서 “외”는 우리말의 전사로써 홀로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모할 “戀” 자를 붙이면 우리말로 (외사랑) 품 되겠습니다... 상대가 전혀 눈치 채지 못하게 혼자서만 가슴앓이 하는 슬픈 감정을 해금과 기타선율로 풀어낸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 “FIELDS OF GOLD”입니다. 해지는 서쪽 노을을 바라보며 노랗게 물드는 대자연에 대한 소박한 마음과 어김없이 나머지 반 바퀴를 돌아 내일이면 동쪽에서 다시 만나고 야 마는 붉은 태양을 보내며, 아름다운 노을과 그 아래 펼쳐진 드넓은 황금빛 들녘에 대한 풍경을 헤어짐이 헤어짐이 아니듯, 해금과 기타가 조를 바꿔가며 계속 이어가는 서정적인 곡입니다.

이용주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아름다움이 그리운 IV”**

이 작품은 “아름다움이 그리운”이란 타이틀로 작곡된 네 번째 작품이다. 그동안 같은 제목으로 클라리넷3중주, 합창, 현악6중주의 각기 다른 편성의 작품들이 만들어져 왔다. 같은 음악적 목적 안에서 다른 소리들로 작곡가가 상상하는 세계를 표현해 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 사이사이에 밝은 세상을 꿈꾸며(현악6중주), 빛을 듣는다(클라리넷7중주), 눈으로 듣는다(현악 오케스트라), 인간사랑(현악 오케스트라)등등의 작곡가의 비슷한 이상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작곡되었는데, 이것을 역시 같은 맥락 안에서 표현의 기법들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작품 “아름다움이 그리운 IV”는, 앞서 밝힌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현대음악의 날카로운 음향 안에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소리들을 찾아나가는 작품이다. 미학적 입장에서 보면, 현대사회를 고통스런 현실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를 꿈꾸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백현주 **가야금, 거문고, 생활을 위한 모음곡 “사막의 발걸음”**

사하라사막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기행문처럼 만든 작품이다. 지구반대편이라는 공간적 거리감보다 과거로 여행을 온 듯한 시간적 거리감이 나의 마음을 더 설레게 만들었던 것 같다. 가야금과 거문고, 생활 3중주를 위한 다섯 개의 모음곡으로 만들었다.

1. 투아렉 소년의 동경
2. 짐지고 가는 베르베르 여인들
3. 그래도 아이들은 자란다
4. 붉은 모래 속 낙타의 행렬
5. 모래언덕에 누워 별을 보다

오세일 **김복근 시에 의한 두 편의 가곡 “한려일출”, “미더덕의 꿈”**

오늘 연주될 두 개의 가곡은 김복근 시인의 현대시조를 텍스트로 하여 작곡된 것이다. 한려일출은 한려수도에서의 생명력 넘치는 해돋이의 장관을 표현하고 있고, 미더덕의 꿈은 미더덕을 의인화 하여 느끼는 고평한 바닷가에서의 정경과 사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용주 **여성합창을 위한 “숲속의 메아리”**

노래음악은 현대음악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언어를 음향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져 왔다. 작품 “숲속의 메아리”도 이와 같은 표현방법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조용한 숲속에서 들려지는 온갖 자연의 소리들을 언어적으로 모방하고, 그것을 음악적 소리로 전환시킨 것이다. 물론 여기서 모방된 자연의 소리라는 것은, 작곡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재탄생된 부분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작품 후반부(141마디)부터 등장하는 리라라...가사가 만들어내는 색채는, 모방의 차원보다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내적 평안과 동경의 세계를 그려려 한 것으로서, 작곡가 자신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홍수정 **기도**

이 곡의 가사는 한 20년 전쯤 메모해둔 구절에서 시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구절의 지은이를 현재 같이 알지 없다. 특히 곡 공간의 바리톤 솔로 ‘나는 먼 길을 달려온 나그네요, 슬한 경험의 뒤에 파란만이 남았소.....’ 이 구절은 세월이 갈수록 마음에 와 닿는다. 많이 수고하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남는 것은 파란과 공허함 뿐인 삶. 답이 없다. 그 분 밖에는.....

김지은 **산유화**

이곡은 김소월 시인의 대표작중 하나인 산유화라는 시에 선율을 붙여 만든 합창곡입니다. 세도막형식으로 크게 A-B-A'로 나누어지는데 A에서는 다소 우울하고 외로운 느낌의 선율이 주를 이루었다면 B에서는 A와 대조적으로 맑고 서정적인 선율로 이루어졌으며 A'에서는 A에서 소프라노와 알토가 화성적으로 불렀던 부분을 모든 성부가 유니즌으로 부르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존재의 근원적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시는 삶, 죽음, 세계라는 곳에서 죽음을 감당하는 것은 철저히 당사자 혼자 몫이라는 작가의 뜻은 '혼자 피었다 진다'라는 가사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저도 이러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마지막부분에서 선율이 클라이막스로 치솟다가 급격히 하향하여 하나의 음으로 끝나는 선율을 사용해 꽃이 지는 느낌을 살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정다정 **계화타령**

'계화타령'은 제주도 민요 중 하나이다. 육지의 잡가에도 있으나 들기가 매우 힘들며, 제주도에서도 성읍 지방의 노인들이 부르고 있을 따름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민요를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다시금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뜻으로 만들어보았다.

가사 및 해설: 옛다 요년 돈 받아라 계화(기생 이름)는 삼경에 들고서
 짐(김) 계화 내 돈만 받아라
 날랑 날건(네가 다시 태어나면) 백록담 선녀로 하강을 하고
 날랑 날건(네가 다시 태어나면) 할로산(한라산) 나뭇꾼이 되리라
 옛다 요년 돈 받아라 계화(기생 이름)는 삼경에 들고서
 짐(김) 계화 내 돈만 받아라
 정든 서봉(서방)이 왜독단(외진) 골목에 아리 들이 만나서
 옥심서니 아이고야 발이 발발이 떠는다

김이레 **추억**

조병화 시인의 '추억'은 한 여류 피아니스트의 연주와 화려한 모습에 매료된 시인이, 갯벌에 앉아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즉흥적으로 읊조린 시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동료 최영섭에 의해 곡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추억'이라는 시에 선율을 붙이기 시작한 것을 4부합창곡으로 다시금 편곡하였다. 그리움과 함께 묻어오는 아련함과 쓸쓸함을 표현하고자했다. 지난날들을 떠올리며 가슴가득 퍼지는 애뜻한 마음속에, 그것은 모두 추억이며 기억의 한편이라는 사실을 가슴절절하게 그려내고 싶었다. 어쩌면 그 추억들에 눈물지를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삶의 아름다운 한 장면이 아닐까...

백현주 **마른장작**

참 재미있는 시, 솔직담백하고 맛깔스러운 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정겨웠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 사투리로 된 노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 시를 택하여 합창곡을 만들게 되었다. 전라도 말의 어감을 살려보고자 했으며, 다소 불안정한 감정변화의 추이를 음악의 밀도 및 원근감을 통해 최대한 표현하고자 하였다.